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월 13일 (제67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에배 워킹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백세시대(百歲時代)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하여 '할머니의 각성'이 그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요즘 할머니들은 남편인 할아버지들이 백세 전에 죽는 것을 자살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장수시대가 열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자각했다. 늙은 남편을 쫓길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늙은 영감 탕이라고 구박했는데 이제 영양식, 건강식도 해주고, 더 짜글거리지 않게 열굴에도 신경을 써주고, 함께 운동도 한다고 했다.

그렇다. 바야흐로 백세시대(百歲時代)다. 정말 백세 이전에 죽는 것은 자살 수준이 될 정도로 오래 사는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오래 살 위험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라'고 외친다. 젊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 서글픈 신세가 되니 젊을 때 건강도 챙기고, 있을 때 물질도 챙겨야 한다. 평생직장은 없어도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준비한 자다.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서글픈 노년이 아니라 아름다운 황혼을 즐길 수 있다. 준비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붉게 물든 저녁녘처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던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더욱이 노년에 후회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라. 실력을 쌓고, 저축을 하고, 운동도 하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 마라.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 이상이다. 그 안에는 풍족함과 여유, 안정도 내포되어 있다. 지리지 공상으로 오래 살면 그게 어디 사는 것인가? 무병장수미락(無病長壽美樂) 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 준비하자. 지금 계획하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키(Key)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송구영신예배에 이어 계속된 신년축복성회 둘째 날, 총회장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기도의 일생을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3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기도로 열고, 기도

마지막을 기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루를 회개하고, 하루를 감사하여 하루의 두루마기를 빼는 겁니다. 그런 자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

하고, 고되고, 힘든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안 아프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나가실 때 기도도 무자고하고 나가셨습니까. 기도 없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좋은 기도와 말씀



2013 신년축복성회(KBS 88체육관)

로 하루를 마감해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의 일생을 사는 자에게 후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새벽기도를 처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분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막1:35). 또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흥해를 새벽에 가르셨고, 만나도 새벽에 내리셨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새벽시간에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뤄주시지 않겠습니까? 흥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만나가 필요합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루의

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신학을 같이 한 동역자 목사님 있습니다. 한 때 교계를 흔들 정도로 능력이 있어 교회가 급성장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더니 결국 능력이 상실됨은 물론이고, 교회도 깨져 지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흥해를 가르려면 몇 십 년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 순간에 이뤄집니다. 메추라기를 당신의 방법대로 하면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순간 지면을 덮을 정도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병들고 가난

에 전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렘6:4).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초창기에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오직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후회 없이 살시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성경에 쉬지 말라고 한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살전5:17). 그러므로 항상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단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신년축복성회를 사고 없이, 후회 없이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이초석 목사 멕시코 집회

▶일시: 2013년 1월 14일(월) ~ 26일(토) ▶장소: 파사팔코스 & 에스카르세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7:14)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구도로 가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창설 50년을 기념해 각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측정해 수치화한 '행복지수(The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OECD 가입국 34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34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뜻밖의 결과지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에 육박하는 경제선진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34개국 중 26위라고요? 먹을 게 넘쳐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국민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지난 대결구도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대결구도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싸우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기업 사주와 노동자가 싸우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치고 박는 모습을 봅니다. 나아가 신성해야 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조차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잦습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

무너지고 노사 모두 죽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여야가 싸움질만 하면 국가는 후퇴해서 결국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짝이 나는 것이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보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제목처럼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정면 승부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손바닥이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한 쪽 손바닥이 세게 휘저어도 다른 쪽 손이 피하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든 상대가 너무 화가 나 있으면 잠시 피해라 합니다.

마가의 일로 다툼이 났을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갔습니다(행15:36-41). 그들이 싸우면서 같이 다녔더라면 그들은 결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싸움에 질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야기될 일들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보니까 어떤 것이 행복인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명

예도 가질 만큼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을

지연정 화목한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뜻이 맞고 정답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부부들이여! 서로 대결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서로 대결한다면 제발을 제가 찢는 꼴이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조금 참아 싸우지 말고 사세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니 어찌니 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치고 박고 싸우지는 않아요.’ 하십니까? 여러분, 말로 싸우는 것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그 독이 한 달 가고, 개에게 물리면 독이 열흘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물리면 그 독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말로 사람을 물면 그 독이 평생 갑니다.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사원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사원이 힘을 받아야 기업이 사는 겁니다. 서로 공생해야 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투견처럼 무조건 싸움부터 하면 공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은 서로 물어뜯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의견을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싸우지 마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성도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 싸우면 그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겠습니까? 마가의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는 텅 비고 말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정치판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여야가 당파싸움 좀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북관계도 대결구도가 아니라 협력구도로 갔으면 합니다. 싸워서 좋을 게 없습니다. 쪽만 하나라도 날아오면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변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서로가 협력의 구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눅11:17).

후회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혼한 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회사가 문 닫은 후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교회가, 국가가 망한 후에 후회는 정말 소용없습니다. 다툼이란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癌)이란 글자를 보세요. 암은 많은 입으로 상대를 물어뜯다가 결국 자신도 죽는 대책 없는 존재입니다. 다툼이 이와 같습니다. 다투고 싸우면 상대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 다툼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나운 파도를 잠재우는 모래가 된다면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일 고기반찬에, 큰 차를 타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화초장 놓고 매일 싸우면 그게 개조장이지 화초장입니까?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때 생기는 발효제입니다. 그러니 다투지 마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업터, 행복한 국가를 만드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할렐루야!

개미가 낸 작은 구멍이 큰 뎀을 무너뜨린다

투기 시작하면 방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축에서 물이 새는 건 방축에 틈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는 곧 방축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노사가 싸우면 기업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여야가 매일 싸우면 국가 안보가 위험하고,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문 닫을 날을 받아놓는 것이고, 부부가 싸우면 법원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축에 틈이 생겨 물이 줄줄 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싸우면, 곧 방축이 와장창 무너져 그동안 수고해서 일궈놓은 전답을 다 쓸어갈뿐더러 사람까지 다치게 됩니다. 기업이라는 방축이, 교회라는 방축이, 국가라는, 가정이라는 방축이 무너져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공멸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싸워보세요. 부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애써 키워놓은 애들도 무너지고, 노사가 싸워보세요.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이 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교단 목사님들의 새해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신년사::



새해의 진정한 의미는 '새'라는 형용사에 숨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 갱신과 갱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변화를 낳고, 변화는 생산성의 원동력이 되기에 그런 의미에서 '새'는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핵이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패역해지고,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빛은 더욱 강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우리 교단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강력한 결집력이 요구되며 오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순종만이 우리의 일이라는 원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모순과 불합리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나중에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며 영적 깊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신입니다. 지난 한해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들이 빛을 불려오고, 배고픔이 식욕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같이, 그 고통이 인생과 복회의 맛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의 고통을 알고 제

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음이 뻗뻗해서 가난하고 못난 이웃을 업신여기며 저 잘난 줄만 아는 내가 아닌지... 각박함과 탐욕을 경계하고, 몸은 오동나무처럼 강건하게, 마음엔 미풍 이는 봄날 같은 온유한 인격이 되기도록 애써야겠습니다.

앞뒤 분별없이 달려가는 자는 필경 남에게 누를 끼칩니다. 빨리 달릴 줄 안다고 저 혼자 달려가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남의 처지도 살펴보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저를 돌아보고 마음을 경계할 줄 알아야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를 두루 돌아보는 마음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고독의 오묘한 송고함 속에서 영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웅성길게 하고 제 품격을 높이며 향기를 더하는 기도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옛 경전을 널리 섭렵해 마음을

여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에 꼭 젖은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정보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성경적 지식을 100% 활용하고,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해는 활짝 열렸습니다. 장대비처럼 호쾌하게 일을 밀고 나가고, 붉은 석류 속처럼 짙은 보람과 결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불꽃과 사랑의 총탄함으로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신기류 목사

사소한 잘못을 뽑아내자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란 것이 있다. 그 이론은 이렇다. 한 골목길에 2대의 차를 어느 정도 먼 간격을 두고 방치해 놓았다. 한 대는 보닛만 열려 놓은 깨끗한 차량으로, 또 다른 한 대는 의도적으로 창문을 하나 깨버린 상태로 주차해 놓았다. 그로부터 10분정도가 지나자,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에는 누군가 접근해서 배터리를 빼갔고, 그 뒤에 또 다른 이가 와서 바퀴를 빼갔다. 또한 신사복을 입은 사람조차도 지나가다가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를 발로 차질 않나, 사람들의 낙서와 투기 등, 차량 외관에 파손을 일으켰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 깨진 유리창의 차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

도로 폐차가 되어버린 반면, 보닛만 열려둔 자동차는 특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설명한 실험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방치하면 결국 더 큰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의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고 치안이 불안한 도시였는데,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절망적인 뉴욕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눈감아 주던 사소한 경범죄인 지하철 무단승차, 구걸, 노상방뇨 등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면서 경범죄에 우선적으로 강력히 대처하였다. 처음에 뉴욕 시민들은 치안개선을 공약하고 당선된 줄리아니 시장의 행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뉴욕의 범죄 발생 건수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연간 살인사건이 50%나 줄어들면서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이론은 일반 조직 관리에서나 가정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도 적용된다. 회사조직 내의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게만 대처하는 것은 그 회사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나치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만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소한 잘못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악영향을 그 조직에 줄 것임이 분명하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사소한 잘못을 사랑하고 귀하게 그지 방치해 두기만 한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인 것도 주일날 지각하는 사람은 단

골로 지각하고, 기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도 있다. 반면에 교회 오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후자는 영·혼·육이 윤택해질 것이다. 기대감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을 방치해 두면 그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곡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잡초다. 잡초를 방치해 두면 잡초가 자라 결국 곡식을 덮어 버린다. 하지만 잡초가 낫을 때 뽑아버린다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도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자. 아주 작더라도 잘못된 습관, 거짓말, 불평, 남의 탓 등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사소한 것을 뽑아내자. 그리하여 2013년은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방예수중심교회 임택환 목사

:: 성경에세이 ::

대인(大人)과 소인(小人)

아들아!

작고하신 내 믿음의 어머니, 네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란다.

대구의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교회 집사가 밥을 해주기 위해 사택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해주는 집사가 딸적 임신한 것을 봤다. 그러니 성도들은 당연히 목사님의 아이라고 수군거렸고, 장로회에서 이 문제를 트집 잡아 목사님을 쫓아냈다. 교회를 나온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대구의 앞산에서 생활을 하겠다고. 이후에 그 집사가 아이를 낳았지. 그러자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핑계를 목사님에게 던지듯 넘겨줬다. 그래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것을 보살폈

지. 그러나 어디 먹일 게 있어야지. 마을로 젓동냥을 하러 나가봤지만, 이미 소문이 난 상태라 누구하나 어린 것에 젓을 물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할 수없이 목사님은 쌀로 압죽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며 정성껏 키웠다.

세월이 흘러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집회였던 모양이다. 부흥사가 모두 회개하라며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는데, 이 때 밥을 해주던 그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 단에 올라가더니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 아이는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시아주버니의 아이라고 실토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거지.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 아들로 까무러칠 수밖에.

다급히 교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목사님께 부린 행패를 생각하니 스스로 생각해도 가관 이거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목사님을 모셔와 섬기기로 하고는 앞산을 찾았지. 앞산에 도착하니 목사님은 아이들 등에 업고 기도하고 계셨다. 장로들은 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잘못했으니 이제 교회로 돌아오시라고 했지. 그러자 목사님은 허허 웃더니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며 지금 계신 목사님이나 잘 섬기라고 했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개척하셨는데, 지금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 이걸 실화란다.

너라면 이런 경우 어찌했는지? 실증판구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내가 안 그랬다고 펄쩍 뛰었겠지?

아들아!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니? 바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인은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지만, 소인배들은 변명이나 핑계에 급급한 거란다. 대인을 대해(大海)로 비유하자면, 소인은 시냇물쯤으로 비유될까? 대회는 물을 던져도 출렁이지 않지만, 시냇물은 작은 물을 던져도 출렁이지. 또한 대회는 더러운 물도, 똥물도 다 받아내어 정화하듯 대인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있지. 나는 내 아들이 대인배가 되기를 원한다. 대해요, 태산 같은 자 말이다.

시나브로 효과

강력 범죄자들의 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작은 범죄로 시작해서 점점 범죄의 규모와 강도가 넓혀져 간다. 한 번에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차차 무뎌지고 회피해지는 것인데 이를 '시나브로 효과'라고 한다.

우리의 가치관도 마찬가지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가치관', 즉 삶의 '기준'이 명료하게 서있지 않으면 이러한 '시나브로 효과'를 통해 어느 순간 더럽혀지기 일쑤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미성년자인 여자 연예인들이 거의 벗은 몸으로 자극적인 춤을 춰야 살아남을 수 있고, 드라마는 복수와 치정을 주제로 해야 시청률이 확보되는 세상이 됐다. 또한 근거 없이 그리스도인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글들이 무책임하게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나브로 효과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에 눈 떠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았던 솔로몬은 이러한 기준을 놓쳤던 자이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치리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는 이방여자와 혼인하지 말라는 기준을 어기고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비록 처음에는 그녀 한 명을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점점 이방여자인 후궁의 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급기야 그들의 문화와 신당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시나브로 효과에 걸려든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직접 경고하시지만, 급기야 솔로몬은 그 명령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결국 나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신복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선고를 듣게 된다(왕상11:1~13).

이와 반대로 시나브로 효과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물들이되 물들이

::성경에서 배운다::

않은 믿음의 선전들이 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 같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더럽히기를 거부했고,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부여주시고 높여주셨다.

또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훗날 총리들과 방백들의 모함으로 그가 사자 굴에 던져질 때에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오히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삼고하여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눈을 바꾸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며 습관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속에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돕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므로 빛나는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인령

Good News

옛날 시골에 사는 어떤 부자가 이른 아침에 종에게 일렀습니다. "자네 아침 먹은 후에 한양에 좀 다녀와야겠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심부름을 보내려고 종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아무도 종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지친 모습으로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여태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종이 대답했습니다. "예, 한양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부지런히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이런 한심한 놈아, 내가 한양에 다녀오라고 한 것은 시킬 일

이 있어서 그랬지 그냥 갔다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평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으나 헛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달려왔다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편에는 우리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의인의 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길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그 분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는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목적지에 이르는 자가 되십시오.

상화평 목사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한국의 역사는 전쟁으로 얼룩졌다. 그것도 동족상잔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였다. 36년간의 일본 압제와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난 6.25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 소망의 씨가 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먼저 성전과 기도원을 건축하고, 거기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히 대한 산야를 뒤흔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짧은 시간에 세계 사람들이 감탄할만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지나해 세계무역 수출국 9위에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로 올라섰고,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 제품이 올해 가장 많이 수출한 효과 품목이 되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1997년 11월 국가 대재앙 IMF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나라가 휘청거렸지만 2000년 12월 IMF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전 세계의 나라는 깜짝 놀랐다. 우

리나라는 가장 짧은 시간에 IMF에서 벗어났고, 올해 11월에 IMF이사국이 되었다. 또 올해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149개국의 압도적인 투표결과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나라는 사마니즘, 불교, 유교로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나라가 부강해졌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웃 나라로부터 전쟁을 막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남아시아에는 벼농사를 이모작, 삼모작하는 데도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다. 그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남은 세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힘써 하나님을 높이자.

안산에수증심교회 김초대 목사

Q&A

Q: 꿈에 교구를 옮기라는 계시를 받고, 가까운 기도처가 있는데도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 동안 그 곳으로 가지 못했더니만 제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A: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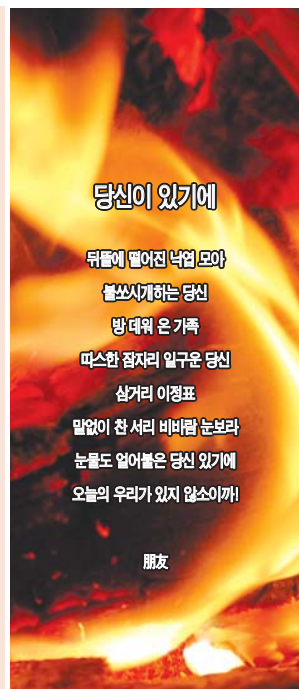
세상의 잡신들은 권위적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을 내려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오히려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때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 하느니라"며 근거 없는 저주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꿈을 사사토이 붙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까운 기도처에 나가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건 강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급해진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법계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삼만 명이 전사한다. 법계가 전쟁의 승리를 좌우했다. 법계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맞볼 수 없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며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 후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당신이 있기에

뒤돌아 떨어진 낙엽 모아

볼쏘시게하는 당신

방 데워 온 가족

따스한 잠자리 일구는 당신

삼거리 이정표

멀없이 한 서리 비바람 눈보라

눈물도 얼어붙은 당신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소이까

朋友